

자동차·타이어 재고 확 줄었는데...

광주권 車 46%·타이어 43% 급감

노사갈등 계속돼 정상 가동 불투명

고객 수요 못맞출땐 성장기회 잃어

광주지역 산업현장의 재고가 확 줄었다. 광주 제조업의 주력인 자동차·타이어·휴대폰용 카메라모듈 등의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한 덕분이다. 공장을 풀 가동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의미다. 회복세를 타기 시작한 세계 경기의 흐름을 올리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가 임금협상을 끌어싼 노사갈등으로 태업과 파업을 거듭하고 있어, 도처립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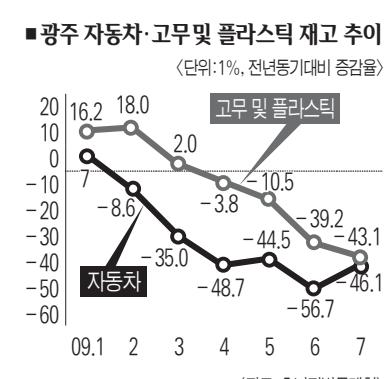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7월 광공업생산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생산지수는 123.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증가했다. 1월 -35.9%까지 하락했다가 4월 -9.2%, 5월 3.2%, 6월 8.5%로 서서히 회복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늘고, 세금감면 혜택으로 내수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생산이 전년보다 32.9%나 늘어 3개월 연속 광공업 생산 증가를 선도했다. 세탁기·냉장고 등 전기장비가 14.7%, 카메라모듈 같은 전자부품 및 영상용통신(-26.3%), 전기장비(-16.0%)의 재고도 크게 줄었다.

그러나 8월 광공업 생산동향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8월엔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가 '노는 날'이 많았다. 월초에 휴가가 집중됐고, 뒤 이어 파업과 감산이

벌 신용경색으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의 수출 및 내수가 격감, 감산을 거듭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자부품 및 영상용통신(-26.3%), 전기장비(-16.0%)의 재고도 크게 줄었다.

광주 제조업을 주도하는 자동차의 경우 재고지수가 지난 1월 전년보다 7% 높았으나, 2월 -8.6% 3월 -35.0%, 4월 -48.7%, 5월 -44.5%, 6월 -56.7% 등으로 내려왔다. 타이어 재고



도 3월까지는 전년보다 높았으나 4월 -3.8%, 5월 -10.5%, 6월 -39.7%, 7월 -43.1%로 수직하강했다.

그러나 8월 광공업 생산동향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8월엔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가 '노는 날'이 많았다. 월초에 휴가가 집중됐고, 뒤 이어 파업과 감산이

계속됐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달 초 휴가가 끝난 뒤 10일부터 임금거부·부분파업 등을 거듭해 9월에 들어갈 정상조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도 한 달 내내 감산과 부분·전면파업을 계속하다가 '직장폐쇄' 사태까지 이르렀다. 생산활동이 크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더욱이 금호타이어는 이달에도 임금협상을 계속하고, 기아자동차는 다음달부터 다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정상화동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조 파업으로 사무직까지 동원해 공장을 돌리기도 했지만 고수 요율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절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공장을 돌아야 할 때"이라고 말했다.

/김지아 emlee@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출하장.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자동차 수요가 늘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의 재고가 크게 줄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중견건설업체 현진 워크아웃 중단

어음 240억 못막아

중견건설업체인 현진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지난달 31일 중단됐다.

현진은 이날 시중은행에 돌아온 어음 약 240억 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현진은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으나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 불가피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현진은 '에버벌'이라는 브랜드로 광주에서는 양산, 수완지구 등에 2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이미 입주가 이뤄졌고 하남지구 572세대는 지난해 1월 공사가 중지됐다.

그러나 하남에 건설중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과 분양보증계약이 체결돼 분양계약자 143세대에 헌금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김지아 emlee@kwangju.co.kr

코스피지수	1,591.85 (-16.09)
코스닥지수	514.70 (-5.49)
금리(국고채 3년)	4.38% (+0.03)
원·달러 환율	1,248.90원 (+4.5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금호타이어, 노조원 21명 고소

사측 해고 대상자 조만간 개별 통지

금호타이어가 사내 농성을 주도한 고공식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장을 2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회사 측은 또 해고 대상자들에게 조만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사측이 기업 생존을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에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노사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31일 "노동조합이 경영상 해고를 반대하기 위한 행위로 차단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31일 "노동

위원회 간부 21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지검에 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지난 7월 17일 노조에 '정리해고 협의 요청서'를 공식 통보한 이후 진행된 부문·전면 파업 등을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2006년 판결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 조건 변경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노

조의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했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는 "지금껏 진행한 쟁의 행위는 구조조정 반대 쟁의가 아닌 임금 협상 과정에서 이뤄진 합법적 쟁의 행위"라는 입장이어서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노조는 또 사측의 2차 회양 퇴직신청 및 정리해고 대상자 통보와 관련,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원 선출이 끝난 뒤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노조는 지난달 27일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해 2일까지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김지아 dok2000@kwangju.co.kr

공적자금관리委 부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31일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 기금 등 공적자금 집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자위는 이날 1차 회의를 갖고 공자위 운영 규정을 의결했으며 진 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자위를 이끌어갈 공동 위원장으로 민상기 교수를 선임했다.

공자위는 작년 2월 정부 조직개편 때 폐지됐다가 1년6개월 만에 부활했다. 앞으로 공자위가 금융권 부실재권과 구조조정 기업 자산을 사들이는 기준을 마련하면 구조조정 기금의 집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우인터내셔널, 우리금융지주, 쌍용건설 등 과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지역 제조업 돈 줄 더 마른다

9월 자금전망 BSI 91... 전달보다 2P 하락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의 8월 중 자금 사정이 전달보다 악화됐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319개의 기업자금을 조사한 결과, 8월 중 자금사정 BSI(기업경기 실사지수)는 89로 전달의 9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95~89)과 비제조업(91~88)이 각각 6포인트와 3포인트 하락했다.

9월 중 자금사정전망 BSI는 93으로 전달보다 3포인트 개선됐으며 업종별로 제조업(93~91)은 2포인트 하락하고 비제조업(86~94)은 8포인트 상승했다.

8월 중 자금수요 BSI는 110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자금조달 BSI는 94로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9월 중 자금사정전망 BSI는 93으로 전달보다 3포인트 개선됐으며 업종별로 제조업(93~91)은 2포인트 하락하고 비제조업(86~94)은 8포인트 상승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상장사 빛 지급 능력 하락

14개사 유동비율 69%... 전년보다 26.95%P ↓

을 상반기 광주·전남 지역 상장사의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는 광주·전남지역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월 말 현재 유동비율은 69.10%로 지난해 6월말(96.05%)에 비해 26.95%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으로 나눈 백분율로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과학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6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3조5천253억원으로 작년 대비 19.94% 증가했고 유동부채는 5조1천16억원으로 66.72% 증가했다.

유동비율은 상위사는 화전기공(327.27%), 광주신세계(263.70%), 부국철강(228.62%), 동아에스티(206.76%), DSR제강(147.56%), KPX화인케미칼(98.81%) 등의 순이었다.

또 유동비율 증가 상위사는 광주신세계(86.53%P), 화전기공(80.64%P), DSR제강(43.01%P), 부국철강(41.17%P) 등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23·24일 '창업스쿨'

신보호남본부

신용보증기금 협회남부본부는 23일과 24일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이내의 초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스쿨'을 연다.

이번 강좌는 사업 타당성 분석, 창업 실무, 창업 관련 행정절차 및 창업 기업의 마케팅 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15일까지 접수하며, 50명을 선발해 진행한다. 교육비는 무료다. 문의 (062)607-9187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법원 앞에서 70m 벽화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수원코리아밸드 공인증개사 사무소
062)951-6800
H.P. 010-3666-8949

수완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팔리스타워빌딩

중앙메디컬빌딩 (분양임대)

뉴타운빌딩

대인동삼일부동산
 ☎ (02)23-1140, 5210 번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div style="border: 1px